

[2013년11월18일 오늘의 아침편지]

잠이 오지 않는 밤  
眠れない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眠れない夜といえ

장롱을 닦는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箆筒を磨くという友人の言葉を聞いて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적이 있었다.  
驚いて口を閉じ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あった

낮에도 하기 싫은 일을 밤에까지 하다니,  
昼にしたくないことを、夜までするなんて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으면  
私には理解ができなかった。眠くならないなら

책을 보든가 컴퓨터 앞에 앉아 노닥거리지,  
本を読むとか、コンピューターの前に座って油を売ったり

꿈에라도 걸레를 손에 쥐고 어디를  
夢にも雑巾を手で持ってどこかを

닦아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磨くという考えをしたことがない

- 장광자의 《춤을 추면서》 중에서 -  
- チャン・クァンジャの<踊りながら>より -

\* 사노라면  
\* 生きていたら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眠れない夜があります

밤은 길고 이불 뒤척이는 소리만 커집니다.  
夜を長く、寝返りを打つ音が大きくなります

잠깐 일어나 방청소, 명상, 호흡, 독서 등등...  
ちょっと起きて、部屋の掃除、瞑想、呼吸、読書など...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自分なりの方法を探すのがよいです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두렵지 않고  
眠れない夜を恐れず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밤으로  
むしろさらに意味ある夜に

바뀝니다.  
変わります

20131118.txt

노닥거리다

[자동사] くだらないことをしきりにしゃべりふざける; 油を売る. (=노닥)...

걸레

[명사]

ぞうきん.

걸레부정의 준말

生きていたら(いつかは)よき日も見るであろうから気を落とさないでくれ 발음 재생 (표제어: -리니)

사노라면 기쁜 날도 오리니 실망하지 마라

이불

[명사] 布団; 掛け布団; 衾[아어(雅語)].

뒤척거리다

[타동사]

あちこちかきまわして探す.

しきりに寝がえりを打つ.

[2013년11월19일 오늘의 아침편지]

할 일의 발견  
すべきことの発見

웅덩이가 가득 차고  
水たまりがいっぱい満ちて

흐르기를 그치면 썩듯이,  
流れが止まれば朽ちるように

한 민족의 마음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一つの民族の心が使命感をなくしてしまえば

망하고 만다. 반대로 아직도 바라는 이상이 있고,  
滅びてしまう。反対にまだ望む理想があつて

자부하는 사명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自負する使命があれば、決して滅びない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 내어라.  
生きたいなら、すべきことを発見しなさい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재생의  
使命の自覚でこそ、再生の

원동력이다.  
原動力だ

-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중에서 -  
- ハン・ソクホンの〈意味で見る韓国史〉より -

\* 할 일이 태산인데도  
\* すべきことが、泰山でも

할 일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すべきことを知らない場合がとても多いです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 합니다.  
何をしなければならいかわからず、右往左往します

방향도 목표도 없이 표류하다 시간을 놓칩니다.  
方向も目標もなく、漂流する時間を取られます

내가 해야할 일의 발견이 첫 출발점입니다.  
私がすべきことの発見が、最初の出発点です

여기에 이상과 사명감까지 더해지면  
ここで理想と使命感まで加われば

위대한 시작점으로 바뀝니다.  
偉大な出発点に変わります

웅덩이  
[명사]水たまり; よどみ; よど.

그치다

[자동사] やむ; 止まる; やまる [속어].

[타동사] 止める; とどめる.

씩다

[자동사]

(부패하다) 腐る; 朽ちる; 御座る [속어].

(활용되지 않다) (活用されるべきものが) 使われずに古...

[자동사] [타동사] (속이 상하다) 心を傷める; 気が病む; 煩う.

자부 (自負)

[명사] 自負.

재생 (再生)

놓치다

[타동사]

(기회·범인·손님 따위를) 逃がす; 逃す; 逸する.

(버스 따위를) 乗りそこなう; 乗り外す; 乗り遅れる.

(보는 것을) 見失う; 見逃す; 見過ごす [노인어].

더해지면加わると

[2013년11월20일 오늘의 아침편지]

가을이 떠나려합니다  
秋が去ります

이젠 가을이  
今や秋が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군요  
去る準備をするようです

아쉽다고 붙잡을 수는 없겠죠/  
惜しいと、つまえられないでしょう

이 가을이 가고  
この秋が去って

매서운 추위가 와야만  
恐ろしい寒さが来る

모든 나무들은 동면에 들어갑니다/  
全ての木は、冬眠に入っていきます

이른봄에  
早春に

따뜻한 햇살이  
温かい日差しが

깨울 때까지 잠을 자야만  
おこすときまで、眠って

싱싱한 새싹을 내게 되지요  
生き生きする新芽を出すでしょう

- 이병한의 시 〈가을이 떠나려합니다〉 중에서 -  
- イ・ビョンハンの詩〈空きが去ろうとします〉より -

\* 웅달샘에도  
\* 小さな泉にも

어느덧 가을이 떠나려합니다.  
いつの間にか空きが去ろうとします

벌써 첫눈이 온 곳도 있고 칼바람도 불니다.  
もう初雪が来たこともあって、ひどい風が吹きます

철따라 옷을 입고 옷을 벗는 나무들,  
四季によつての服を着て、服を脱ぐ木

철을 모르면 산 나무가 아니지요.  
四季を知らなければ、生きた木ではないでしょう

사람도 제 철을 알아야 삽니다.  
人も、自分の四季をわかつていきます

늘 '철 모르는 아이'가 되면  
いつも'四季を知らない子供'になれば

곤란하잖아요?  
混乱しませんか?

붙잡다

[타동사]

(손으로)つかむ;つかまえる.

(체포하다)捕らえる;引とらえる;取りおさえる.

(말리다)引き留める.(=붙들다)

깨우다

[타동사][ '깨다' [자동사] 1. '의使役]起こす;覚ます.

싱싱하다

[형용사]

生きがいい;生き生きしている;ぷりぷりしている.

(色が)みずみずしい;若若しい;若やかだ;なまなまし...

元気だ;活発だ;ぴんぴんしている.[작은말]생생하다.[센...

새싹

[명사]

新芽;若芽.

事物の根元になる新たな始まり.(→새순)

칼바람

[명사]

ひどい風.

ひどい仕打ち.

せつげっか [雪月花] 발음 재생

설월화; 눈과 달과 꽃; 철따라 즐길 수 있는 좋은 경치.

2013년 11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

부모가 찌르는 비수  
両親が刺す短刀

부모가  
両親が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自分の傷を解決できないまま

아이를 사랑한다고 안아주면, 그 상처가  
子供を愛してると抱いてあげれば、その傷が

비수가 되어 아이를 찌른다. 아이가 아파하면  
短刀になって子供を刺す。子供が痛がれば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더욱 꼭 안아주게 되지만  
ごめんと、気の毒にさらにぎゅっと抱きしめるが

부모가 품고 있는 비수에 더욱 깊숙이 찔릴  
両親が抱いている短刀にさらに深く刺す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しかない。それでも、大半の両親は

아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子供が倒れる前までは、それを

바른 사랑이라 착각하고 만다.  
正しい愛だと錯覚している

- 원동연의 《나는 언제나 온화한 부모이고 싶다》 중에서 -  
- ウォンドンヨンの〈私はずっと温和な両親でいたい〉より -

\* 부모 때문에  
\* 両親のために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傷を受ける子供たちが意外に多いです

부모는 사랑이었으나 아이에게는 비수가 되어  
両親は愛したが、子供たちには短刀になって

평생의 큰 트라우마로 남아 가슴을 후빉니다.  
一生大きなトラウマとしてのこり、胸をえぐります

먼 훗날 부모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遠い未来両親の歳に至ってようやく

그게 비수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깨닫지만  
それが短刀ではなく愛だったのかと気付く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その時はすでに遅いです。だから両親も

사랑의 표현방식에 대해서  
愛の表現方式について

늘 성찰해야 합니다.  
ずっと省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찌르다

[타동사]

(뺨죽한 것으로) (針·刀槍などで) (突き) 刺す; 突く.  
(공격함) (背後·虚などを) 突く.  
(찢러 놓다) (ポケットなどに手を) 突っこむ.

たんとう [短刀] 발음 재생

단도; 비수. (=あいくち) (↔長刀)

안쓰럽다

[형용사]

(弱い者や年下の者に迷惑や世話を...  
(弱い者や年下の者が) いたわしい; 痛ましい; ...

후비다

[타동사]

ほじくる.

(穴などを) えぐる; くじる; ほじる [속어].  
(秘密やあらを) 深く探る.

성찰 (省察)

[명사] 省察.



2013년 11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

구경꾼  
見物人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我々が何を学んだのか?

자신의 꿈을 좇으며 주어진 일을  
自分の夢を追いながら与えられたことを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곧 뭔가를 짓고, 그리고,  
熱心にする人々、すぐに何かをつくって、そして

개조하고, 채워넣고, 견뎌내고, 구입하고, 팔고,  
改造して、満たして、耐えて、購入して、売って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이들은 무사히 살아남는 반면,  
微笑みながら生きていく、彼らは、無事に生き残る反面

남의 허락이나 보장된 성공, 다른 사람의 도움을  
他人の許可や、保証される成功、他人の助けを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용히 밤의  
ひたすら待つ人は、静かに夜の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暗闇の中で、消えることを

배웠다.  
学んだ

- 웬디 웰치의 《빅스톤갭의 작은 책방》 중에서 -  
- ウェンディ・ウェルチの〈ビックストンギャップの小さな机〉より -

\* 나는 내 인생의  
\* 私は、私の人sねいの

주인인가, 손님인가?  
主人か、客か?

주인공인가, 구경꾼인가?  
主人公か、見物人か?

이따금 필요한 자기 성찰의 질문입니다.  
さつき必要な自分の省察の質問です

답은 분명합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答えは明確です。見物人ではありません

내 인생은 내가 곧 주인입니다.  
私の人生は、私が主人公です。

이 생각만 확고히 지키면  
この考えだけ確固に守れば

진짜 주인이 됩니다.  
本当の主人になります

구경꾼

[명사] 見物人.

좃다

[타동사]

追う.

服従する; 従う.

(大ぜいに) 従う.

개조 (改造)

[명사] 改造.

마냥

[부사]

ひたすら; 専ら; 全く.

充分; たらふく; 思う存分に; 十二分(...)

이따금

[부사] 時々; 時たま; 時折; 折折; ちょいちょい; ...

질문 (質問)

[명사] 質問; 問い; アンケート.

확고히

[부사] 確固と.

[2013년11월23일 오늘의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최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ェ・ジヨ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겁먹지 말아라  
怖がらないようにしよう

채윤은 다짐했다.  
チェユンは念を押した

겁먹지 말아라. 겁을 먹는 순간  
怖がらないようにしよう。怖がる瞬間

지는 것이다. 그것은 수십 번의 전투에서  
負けるのだ。それは数十回の戦闘で

몸으로 배운 생존의 방식이었다. 살아남는  
体で学んだ生存の方式だった。生き残る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발백중의 활숨씨도,  
一番確実な方法は、百発百中の弓の腕も

전광석화의 칼숨씨도 아니었다. 그것은  
電光石火の刀の腕でもなかった。それは

겁을 먹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적이  
恐れないことだった。いくら敵が

많아도, 기세가 등등해도, 겁을 먹지  
多くても、勢いがあっても、恐れない

않으면 이기지 못할지언정  
なら、勝つ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あっても

살아남을 수는 있다.  
生き残ることができる

-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 중에서 -  
- イ・ジヨンミヨンの〈根が深い木〉より -

\*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 虎穴に入っても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했던가요.  
氣を張り詰めればよ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배는 해류와 같은 방향으로 항해해야  
海は海流とおなじ方向にむかって

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몸과 맘은 하나입니다.  
早い速度ではしります。体と心は一つです

맘먹기에 따라 몸은 움직여 주는 것이니 겁을 먹지  
決心によって、体は動いてくれるので、恐れ

않는 것이 좋은 무기를 들고서 벌벌 떨고  
ないことが、いい武器をとってぶるぶる震えて

있는 것보다 이길 확률이  
いるより、勝つ確率が

훨씬 높습니다.  
一層高くなる

겁먹다 (怯—)  
[자동사] おじける; おじけづく; びくつく; ものおじする; 怖がる (타동사적); 恐...  
せんとう [戦闘] 발음 재생 중요

전투.  
활줄 ‘줄통’의 옛말.

줄통  
[명사] 弓束. (=활줄통)

전광석화  
[명사] 電光石火.

등등하다 (騰騰—)  
[형용사] 当たるべからずの氣勢だ; (ひどく)いきり立っている.  
きをはりつめる [氣を張り詰める]

마음을 잔뜩 긴장시키다; 바짝 정신 차리다.

해류 (海流)  
[명사] 海流. (=무대)

맘  
[명사] 마음의 준말

맘먹기 決心する  
들다5

[타동사]  
(손에) (手に)持つ; (手に)取る.

上げる.  
(들어올리다) 挙げる; (上の方に)持ち上げる.

벌벌  
[부사]  
(떨다) ぶるぶる; びくびく; おどおど.

(아끼다) けちけち.  
(기다) 地面を這うさま: ずるずる; ごそごそ; もそもそ. [작은말]...

떨다1  
[자동사] [타동사]

(흔들리다, 흔들다) 震える; 震わす; 小刻みに揺れる [...]

(두려워) おののく; おびえる.  
(몸을) 寒さ・恐ろしさ・怒りなどで, からだなどを震わ...